

Case Report

외안근전침요법과 한약을 이용한 Tolosa-Hunt Syndrome 치험 1례

윤인환¹, 강정아², 김남권¹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 ²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

A Case of Tolosa-Hunt Syndrome Treated with Herbal Medicine and Electroacupuncture at Oculomotor Muscles

In-Hwan Youn¹, Jung-Ah Kang², Nam-Kwen Kim¹

¹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olosa-Hunt syndrome (THS) is characterized by painful ophthalmoplegia and diagnosed by the exclusion of other major diseases. This study was done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electroacupuncture at oculomotor muscles and herbal-med on a THS patient.

We used this method and Bogan-san (Bǎogān-sǎn) without steroids and treated a THS patient who suffered from pain behind the right eye, ophthalmoplegia, ptosis, frontal headache and dysosmia. 18 days after admission, the symptoms were improved and almost gone.

In conclusion, we suggest electroacupuncture at oculomotor muscles and Bogan-san (Bǎogān-sǎn) is effective to treat THS without steroids, and we recommend more studies of this method on THS.

Key Words : Tolosa-Hunt Syndrome, ophthalmoplegia, oculomotor muscle, electroacupuncture, Bogan-san (Bǎogān-sǎn)

서 론

안구신경 마비가 동반된 안면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많은 질환들의 감별이 요구되며, 대표적인 원인들로는 위안와틈새(superior orbital fissure)나 해면정맥동의 외상, 종양, 혈관질환 또는 염증 등이 있다¹⁾.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포괄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며 두개강 내에 특별한 질환이 발견

되지 않고 다른 전신질환들이 배제될 경우 Tolosa-Hunt Syndrome(THS)을 의심해 볼 수 있다²⁾. THS는 편측성 안구의 마비와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1954년 Edvardo Tolosa가 의해 처음 발표하였고 이어서 Hunt 등이 6예를 발표하면서 진단기준을 설정하였다³⁾.

한의학적으로는 眼痛, 目偏視 등의 범주에 속하며, 한방치료를 통하여 치료한 예가 윤⁴⁾, 연⁵⁾, 변⁶⁾ 등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외안근전침요법은 마비측 안근에 직접 전극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김 등이 이를 이용하여 성인 및 소아의 마비성 사시환자와 Miller-Fisher 증후군 환자의 치료 증례⁷⁻¹⁰⁾를 발표한 바 있으나

· 접수 : 2008년 5월 21일 · 채택 : 2008년 7월 4일
· 교신저자: 김남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6-1 원광대
산본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Tel : +82-31-390-2672, Fax : +82-31-390-2319,
E-mail : drkim@wonkwang.ac.kr)

THS에 외안근 전침을 이용하여 치료한 보고는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 이제 저자는 THS로 진단 후 외안근전침과 한약치료를 통해 호전된 증례를 통해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연구대상

- 1) 성명: 임OO
- 2) 성별/나이: F/64
- 3) 주소증: 우측 안통, 우측 외안근마비, 우측 안검하수, 우측 전두통, 우측 비강 내 이상 감각 및 후각 이상
- 4) 발병일: 2008.04.07
- 5) 과거력: 2001년 CVA
HTN(+) 2001년, DM(+) 2001년
- 6) 가족력: 자매 HTN, DM, 중풍
- 7) 현병력:
2008.04.05 우측 두통으로 local 한의원 치료
2008.04.07 주소증 악화됨
2008.04.08 본원 OPD 경유하여 입원함
- 8) 검사:
 - ① B-MRI(2008.04.08)
Old hemorrhagic infarction at left basal ganglia, thalamus, and corona radiata
 - ② 혈액검사(2008.04.09)
ESR 37.0 mm/hr
LDL-Cholesterol 134.0 mg/dl
생화학검사, CBC검사, 지질검사 상 상기 내용 외 특이사항 없음.

- ③ ECG
normal ECG

9) 진단

내원 당시 우측 안구 속에서 찌르는 통증과 함께 외안근마비로 인한 사시 증상 있었으며, 동반 증상으로 우안검하수, 우측 전두부 통증, 우측 비강 이상 감각 및 후각이상(피 냄새, 매운 느낌) 등을 호소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과거 2001년 CVA로 인한 우측 편마비 후유증 외에 다른 뇌신경 기능장애는 없었다. 다른 두개강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포괄적인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 발견되지 않아 제외 진단으로 THS 진단 하에 치료를 시작하였다.

2. 치료방법

1) 외안근전침요법

- ① 전침기 : 일본 Suzuki Iryoki사의 PG-306
- ② 전침조절 : 1회 치료 시 120Hz대의 연속파를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 15분 사용하였으며, 1일 2회 시술하였다.
- ③ 시술방법 : 외안근 자침은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안와와 안구 사이로 상하 안검을 관통하여 공막과 안와벽 사이의 마비된 안근에 약 1.5~2cm 정도 자침한 후 전침기에 연결하여 치료하였다.

2) 한약요법

東醫寶鑑 外形篇 眼門에 있는 保肝散¹¹⁾을 기초로 하여 1일 3회 투약하였으며, 처방구성과 주치는 다음과 같다.

① 처방구성

천궁, 당귀, 지골피, 창출, 백출, 밀몽화, 강황, 천마, 박하, 시호, 고본, 석고, 목적, 연교, 세신, 길경, 방풍, 형개, 감초 각 2g, 치자, 백지 각 1.2g

② 主治

治風邪入腦, 看一成二, 欲成內障

3. 치료기간

2008.04.08 ~ 2008.04.25 (총18일) 기간 동안 입원 치료함.

4. 치료경과기록

감각이상과 통증정도는 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VAS 0)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증상(VAS 10)을 10단계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비강내 이상감각 및 후각이상 증상은 VAS 4에서 VAS 0, 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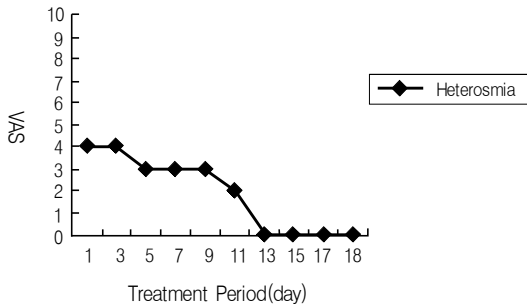


Fig. 1. Heteros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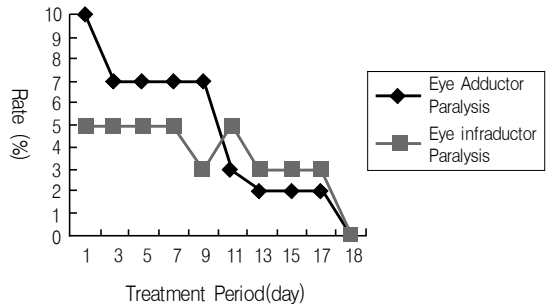


Fig. 3. External Ophthalmopleg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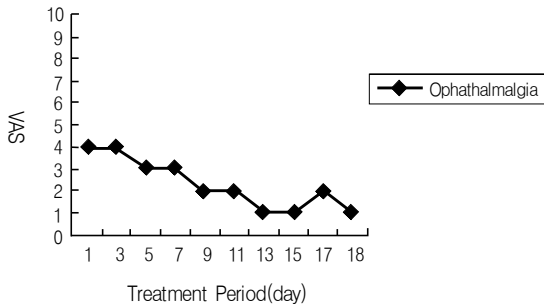


Fig. 2. Ophthalmalg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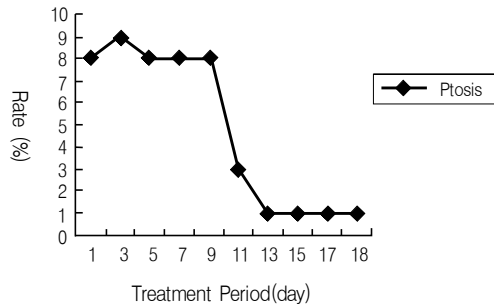


Fig. 4. Pt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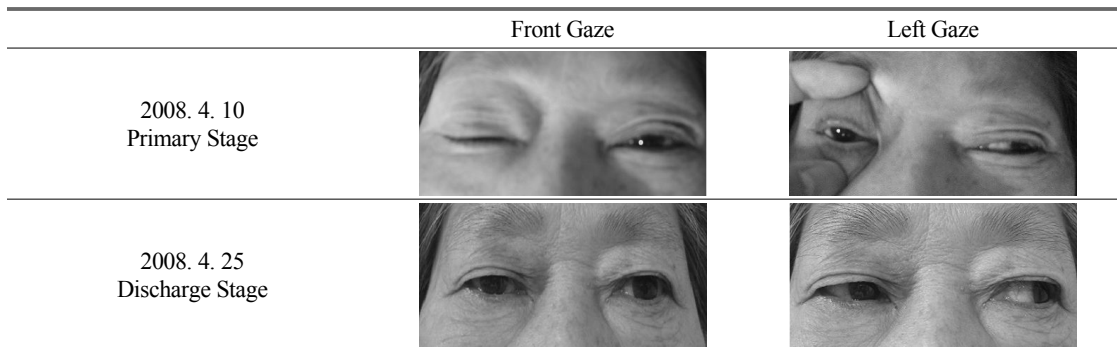


Fig. 5. Progress Picture

동통은 VAS 4에서 VAS 1로 호전되었다.(Fig 1,2)

외안근마비는 안구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마비도 0%(정상)으로 가정하여 정상측과 마비측의 움직임 정도를 육안적으로 측정된 결과 內側운동제한은 100%(완전마비)에서 0%(정상)으로, 下側운동제한은 50%마비에서 0%(정상)으로 호전되었으며, 안검하수는 개안 시 정상측과 비교하여 90% 마비에서 10%마비로 호전되었다.(Fig 3,4,5)

고 찰

Tolosa-Hunt Syndrome(THS)는 안구신경 마비를 동반한 편측성 안구통 또는 안면통을 특징으로 하는 위안와틈새나 해면정맥동의 원인을 모르는 비 특이적 염증에 의한 희귀질환으로 특정환호발 연령대나 성별 없이 발생 한다²⁾.

임상증상으로 삼차신경 분포 영역에서의 지각감소 및 안통통, 안근마비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안검하수, 안구돌출, 시력감소, 경도의 결막출혈, 안와주위의 부종, 동공이상,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올 수 있으며^{12,13)}, 2004년 국제두통학회에서 발표한 THS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1)¹⁴⁾.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안근마비와 안통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이 제외되었을 때 진단기준에 맞추어 진단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감별질환들에 대한 숙지와 포괄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다.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trauma, vascular cause, neoplasm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염증성 병변 등이 있다. 또

한 안와질환, 당뇨병성 안근마비, 후두와 동맥류, 거대세포동맥염, 안근마비성 편두통 등도 감별해야 할 질환이다¹⁾. 혈액검사상 특이한 임상검사소견은 없으나 급성기에 경도의 백혈구증다 및 호산구증다, ESR 증가 등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Brain CT나 MRI 등을 이용한 해면동 및 상안와열의 구조적 이상의 관찰을 통해 진단에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15,16)}.

본 환자의 경우 내원 당시 우측 안구 속에서 찌르는 통증과 함께 외안근마비로 인한 사시 증상이 있었으며, 동반증상으로 우안검하수, 우측 전두부 통증, 우측 비강 이상 감각 및 후각이상(피냄새, 매운 느낌) 등을 호소하였다. 혈액검사상 ESR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고, Brain MRI 검사상 과거 Old hemorrhagic infarction 외에 다른 두개강 내 병변이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에서는 과거 2001년 CVA로 인한 우측 편마비 후유증 외에 다른 뇌신경 기능장애는 관찰되지 않아 제외 진단으로 THS 진단 하에 치료를 시작하였다.

THS의 주증상이 안통과 안근마비로 인한 사시, 복시 증상임을 볼 때 한의학적으로 眼痛과 目偏視의 범주에서 접근해야 한다.

眼痛은 目眇白眼痛과 目珠黑眼痛으로 분류된다. 眼痛이 早晨과 晝間에 발생하는 것은 陽에 속하고, 午後와 夜間에 발생하는 것은 陰에 속하며, 暴痛, 腫痛, 食後目痛, 久痛이 不止하면 實證이고, 오래된 眼痛이 때때로 時作時止하며 또 동통이 경미하면서 不腫하고 飢餓時目痛은 虛證이다¹⁷⁾.

目偏視는 小兒通睛과 瞳神返背로 구분하며, 본

Table 1. ICHD-II Diagnostic Criteria of Tolosa-Hunt Syndrome

-
- A. One or more episodes of unilateral orbital pain persisting for weeks if untreated
 - B. Paresis of one or more of the third, fourth and/or sixth cranial nerves and/or demonstration of a granuloma by MRI or biopsy
 - C. Paresis coincides with the onset of pain or follows it within 2 weeks
 - D. Pain and paresis resolve within 72h when treated adequately with corticosteroids
 - E. Other causes have been excluded by appropriate investigations
-

사례의 경우 瞳神返背에 해당한다. 瞳神返背는 神珠將反, 轆轤轉關, 陰睛, 風見偏視, 風牽喎斜라 하여 單眼 혹은 兩眼이 斜翳으로 轉換되고 黑睛이 內外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며, 瞳神返背가 나타나면 視物爲二한 複視 증상도 겸하여 발생된다. 또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병기는 주로 六氣偏勝으로 인해 風熱이 相搏되어 筋絡이 攣急牽引하여서 발생된다. 병인으로는 正氣不足으로 脈絡이 空虛한데 風邪가 침입하거나 脾失健運으로 聚濕生痰할 때에 風邪가 들어와서 風痰阻絡하여 氣血이 不行되어 筋脈이 失養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肝腎陰虛로 肝陽上亢하여 風熱이 眼目에 上冲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¹⁷⁾.

전침요법은 치료나 진통의 목적을 가지고 침을 통하여 신체 조직에 박동성의 전류를 흘리는 것으로 파형에 따라 통증질환이나 마비질환 등에 다양하게 사용 된다¹⁸⁾. 이를 이용하여 팔다리의 마비를 치료한 보고¹⁹⁾가 있으며 또한 전²⁰⁾ 등은 동안신경마비에서, 안²¹⁾ 등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서 마비된 신경과 근육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전침요법을 사용하였다.

외안근전침요법은 전침요법을 이용하여 마비된 안근에 직접 전기자극을 가하는 방법이다. 안근 자침은 주변 조직의 손상에 의한 결막염, 뇌막염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침 방향은 안와와 안구 사이로 상안검 또는 하안검을 관통하여 공막과 안와벽 사이로 마비된 안근에 자입한다⁹⁾. 김 등⁷⁻¹⁰⁾은 이를 이용하여 성인 및 소아의 마비성 사시질환과 Miller-Fisher 증후군 등의 안근 마비 증상을 치료하여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환자의 겨우 脈絡이 空虛한 가운데 風邪가 침입한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 외형편 眼門의 保肝散을 선택하여 투여하였으며, 침치료는 외안근전침요법을 기초로 하여 안구주위혈과 합곡, 족삼리, 태충, 태계 등의 혈을 가미하였다. 이상과 같이 치료한 결과 통증의 양상과 안근마비의 정도가 유의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치료기간은

총 18일이었다.

본 증례는 양방에서 THS에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 의학적인 치료만으로 단기간에 치료된 예로서, 향후 보다 많은 증례를 통하여 유효성과 안정성이 증명된다면 발병초기부터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의 한방증례⁵⁻⁶⁾에서 사용하지 않은 외안근전침요법은 안근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여타 질환에서 적극적으로 응용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 생각된다.

요 약

2008년04월07일 발생한 THS 증상으로 OO한 방병원에 입원하여 2008년04월08일 ~ 2008년04월25일까지 총 18일간 치료받은 환자 1례에 대하여 외안근전침요법과 보간산 투여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향후 외안근전침요법의 활용범위 확대와 THS의 한방치료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및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L B Kline, W F Hoyt. The Tolosa-Hunt Syndrome.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1;71:577-582
2. 심재광, 문진천, 윤경봉, 김원욱, 윤덕미. 안면통에 동반된 가톨릭신경의 지연마비 증례: Tolosa-Hunt 증후군. 대한통증학회지 2006; 19;104-106
3. 이선숙, 김경숙, 한영진, 최훈. 비전형 Tolosa-Hunt Syndrome 1예. 대한통증학회지 1989;2 (2):198-202
4. 윤형석, 강성길, 김창환. Tolosa-Hunt Syndrome 치험 1례. 대한침구학회지 2001;18(5):179-184

5. 연경진, 정현아, 류현신, 임승환, 노석선. 養陰明目湯加味方으로 호전된 Tolosa-Hunt 증후군 1예.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220-225
6. 변학성, 심성용, 엄유식, 홍철희, 김경준. 안면마비를 동반한 Tolosa-Hunt Syndrome 환자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2):86-92
7. 김남권, 황충연. 외안근 전침 자극을 이용한 마비성 사시 환자의 치험 3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1):247-250
8. 두인선, 김진만, 홍철희, 서은성, 박민철, 김남권. Miller Fisher 증후군의 동안신경마비에 대한 치험 1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3):842-845
9. 김남권. 외안근 전침요법을 이용한 소아의 마비성 사시 치험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232-236
10. 김남권. 외안근 전침요법을 이용한 교통사고 유발 마비성 사시 환자의 치험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1):133-138
11. 허준. 정교 동의보감. 서울:한미의학. 2001:297
12. 김종성, 이상복, 명호진. The Tolosa-Hunt Syndrome. A clinical study of 10 cases. 대한신경과학회지. 1988;6:27-32
13. 유동식, 홍영재. Tolosa-Hunt 증후군 1예. 대한안과학회지. 1986;27(3):131-133
14. B. Schuknecht, V. Sturm, T.A.G.M. Huisman, K. Landaul. Tolosa-Hunt syndrome: MR imaging features in 15 patients with 20 episodes of painful ophthalmoplegia. Eur J Radiol (2008), doi:10.1016/j.ejrad.2007.11.034
15. 이인규, 정병천, 서정규, 박영춘. Tolosa-Hunt 증후군 1례보고. 계명대학교 논문집. 1984;3(1):121-124
16. 이충성, 이용만, 최광주, 지남철. 해면동육아종에 의한 Tolosa-Hunt 증후군 2예. 대한안과학회지. 1994;35(11):135-141
17. 노석선. 원색안이비인후과학. 주민출판사. 2003:100, 257-258
18. 전국한외과대학침구경혈학교실편저. 침구학(하). 서울:집문당. 1991:1447-1451.
19. Li Khao Lin. Treatment of limb paralysis using low frequency deep electric stimulation. Med Tr Prom Ekol. 1995;(9):33-37.
20. 전형준, 황욱, 김종인, 이흥민, 남상수, 김용석. 전침으로 치료한 동안신경마비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2;19(4):200-207.
21. 안병준, 송호섭. 말초성안면신경마비의 전침 치료 효과. 대한침구학회지. 2005;22(4):121-129.